



《제4회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

과학기술과 종교의 뿌리는 같았다

글 | 서금영 _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

“그 래도 지구는 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 법정을 나서며 했다는 이 말은 종교에 맞선 과학자의 신념을 대변하는 격언으로 회자된다. 특히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과학과 기독교는 격렬한 논쟁을 시작했다. 이후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이에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지난 2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자연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이해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며 “그 지혜를 향한 소중

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종교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도 축사에서 “현대문명의 비약적 발전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가져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며 “과학과 종교의 진리가 인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겸 한국학술협
의회 이사장



현우식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사에 나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서로 ‘좋은 만남’ 일 때도, ‘나쁜 만남’ 일 때도 있다”며 “종교의 편견으로 과학을 보면 안 되고, 과학이 악용되면 종교가 제어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를 주제로 기초강연에 나선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겸 한국학술협의회 이사장은 과학과 종교의 접점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을 소개하면서 “17세기의 과학혁명만 15세기의 르네상스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의 묘비명에는 ‘뉴턴 있으라 하시매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뉴턴에게 있어 만유인력은 신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원리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과학기술자?

현우식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직업은 과학기술자였다”며 그에게 과학과 종교는 적이 아니라 동지였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고, 종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직업은 그리스어로 ‘테크톤(tekton)’으로 우리말로로는 목수로 번역돼 왔으나, 2000년 전에는 석공, 목공, 금속공, 수레제작, 가구제작, 건축, 각종 수리 기술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언어로, 현대적 표현으로는 기술자나 전문가 사라는 얘기다.

또 예수의 탄생 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는 마고스

(magos)를 번역한 말로 시대정황이나 문맥에 따라 사제, 현자, 왕, 미술사, 점성술(점문학)과 연금술(화학), 의술(의학)에 정통한 과학자 등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교수는 “과학자와 그리스도의 만남은 처음부터 아름다웠고 갈등이나 대결, 부정의 좌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둘 사이의 공명적 대화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간을 기만하는 일을 철저히 방지하는 도구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DNA와 연기-과학과 불교의 생명관’란 주제발표에서 “과학계가 불교의 명제와 언어, 논술을 과학의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면서 과학적 논의의 대상 내지 파트너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경계할 것”이라며 “전체를 공유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접근방식도 다른 두 당사자가 단순히 평면 위에서 대립해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찬양하는 일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해악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불교와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탐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명이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과학은 생명체가 하나의 개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신진대사와 번식의 유무로 생명체를 파악하지만 불교는 나 자신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개체가 상호의존적임을 깨닫고 그런 ‘연기적’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생명체의 개체성까지, 아니 그것부터 문제를 삼는 경우다.

과학과 종교, 서로 균형과 견제를

그러나 윤 교수는 “오늘의 과학과 불교의 만남은 각자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 정체까지 인식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이를 오히려 보존하고 부각시킨 채로 서로 다른



문영빈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김용학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신재식 광주신학대 교수

좌표를 다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맥락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영빈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는 ‘과학기술과 종교-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과 종교는 자연재해나 질병, 죽음 등과 같은 극한적인 자연의 우발성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창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생존환경의 우발성을 제어하기 위해 불이나 사냥, 농경 도구들을 만든 것이 과학기술의 근원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현상의 배후에 초월적 존재를 상정한 신화적 의사소통이 종교의 탄생 배경이란 설명이다. 그렇지만 문 교수는 “인류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의 창조적 교류, 상호침투를 통해 최적화돼야 한다”며 “멋진 신세계를 위해 과학은 종교의 폭정을 견제하고, 종교는 과학의 자연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용학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학에도 믿음이 있으며 이 믿음이 생성과정은 종교적 믿음과 대칭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도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 만큼 과학기술도 한 시대의 사회적 믿음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과학의 역사가 보여준 과학의 제한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종교와 과학은 서로 영감을 주는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과학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는 과학이 신념체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박 교수는 “재현성이 있는가? 수치화가 가능한가? 만으로도 배경적 이론없이 과학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역설했다.

사람이 개미에게 3차원 요구할 순 없어

또 박 교수는 “가톨릭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부정하거나 미국 대공황 시기에 다윈의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룡과 인간의 발자국이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고 꾸민 일 등은 종교가 과학을 너무 크게 본 사례”라며 “3차원에 사는 인간이 2차원에 사는 개미를 3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듯 무한차원의 종교가 낮은 차원의 종교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재식 광주신학대 교수 역시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난 학자들이 종교로서의 과학, 과학으로서의 종교를 담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과학과 종교의 만남이 이뤄질 때 보다 풍성한 담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의 개입이 없이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확장되고 있다”며 “그러나 과학자 스스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종교와 함께 사회의 진리를 풍성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행사를 기획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자와 종교계가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김광웅 교수와 함께 과학기술과 여성, 리더십, 정치와의 만남 등을 주제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변화의 역동성을 인식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D**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